



'걸어다니는 미술 대사전' 김달진

뭐든 모으기 좋아하는 천성. 미술이 좋아
'미지만 들어가도 모아들이던 학생. 꿈에
그리던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돼-일용직으로 들어가 14년 근무에 10급
말단직으로 끝났지만-도록보따리 메고
화랑 돌던 20대 청년. 이젠 미술계 공인
'인간자료실'. 잘못된 채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미술 그러모아 한국현대미술사를
바로 세우는 게 그의 꿈이다.

글 이무경·사진 권호욱기자

에피소드 1 무엇인가를 모으기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다. 우표, 담뱃갑, 상표... 새로 나온 우표를 사려고 우체국 앞에 줄을 서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담뱃갑을 모으다가 어른들에게 '어린 것이 무슨 담뱃갑이냐'고 혼나기도 했다. 5남1녀중 막내인 그는 초등학교 4학년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점점 내성적이 되어갔고, 수집하는 취미에 더욱 몰두했다. 중학교에 다니던 어느날 여생자에서 '이달의 명화'라는 코너에 소개된 외국의 명화를 보게 됐다. 그때부터 다른 것을 제쳐두고 온갖 잡지에 소개된 그림과 미술관련 글들을 오려 모으기 시작했다.

에피소드 2 72년 한 고등학교에 보따리 하나를 싸가지고 총익대 박물관장실을 찾았다. 어렵사리 관장을 만난 그 학생은 보따리를 풀었다. 거기엔 몇년간 온갖 잡지와 신문에서 골라 오려모아 컨트롤지에 정리한 자료가 철근으로 묶여 15권으로 정리돼 있었다. 이경성 박물관장은 '솔직한 일'이라고 칭찬해주었고 그 학생의 이름을 기억해주었다.

그 학생이 바로 훗날 '걸어다니는 미술사' '인간자료실'로 불리게 된 미술계의 기인 김달진씨(44·가나아트센터 가나미술연구소 자료비디오팀장)다. 적어도 한국 현대미술사에 관한 한 그는 '소금'같은 존재다. 화가나 평론가들도 자신이 그린 작품이나 전시회, 비평에 관한 자료를 그에게 묻는 일이 흔하다. 걸으려는 화랑엔트 보이는 우리 미술계. 그러나 작가의 이름이나 연보 등 기본적인 1차 자료조차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달진씨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현대미술사를 정리하는 일을 자임하고 나섰다.

18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된 이경성 선생께 다시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 알아보고서 서무과장을 부르시더니 채용해주셨습니다.

월급 4,500원의 일용직급 임시직. 현대미술관에서의 김달진씨 첫 직급이었다. 하지만 그는 좋았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화장실 청소만 하더라도 좋겠다'는 것이 당시 그의 심정이었다. 전시회에 소속된 그는 미술관의 온갖 자료에 파묻혀 하나씩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슬기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또 금요일만 되면 커다란 보따리를 풀러내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시작해 사간동 인사동 동숭동과 해방을 돌았다. 하지만 매주 전시장에 나타나 전시회 도록과 전시된 작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해 보는 그를 미술계가 금방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

185년 미술계간지 '선미술'에서 알려지던 유홍준 교수의 격려로 '관람객은 속고 있다'는 글을 거침없이 실게 되었습니다. 제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의 약력이나 연보 연표 등에 오기와 오욕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한 것이었고, 일간지에도 소개되는 등 반응이 대단했고, 미술계에서 바보소 지어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미술에 연대 제제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삼국시대 사서고육원, 서울신문대 급속공과를 다니며 수강해두었다. 94년에는 중앙대 미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에 입학해 공부하는 등 역량을 부렸다. 그 이듬해에는 '바보소'는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는 책을 냈다. 500여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작가, 작품, 단체, 연대, 국내의 전시회 등 한국미술계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이미 출판되어 있는 한국현대미술연감' 같은 것이 있지만 출판권 1차 자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높이 위상해(1973~1997) 같은 자가는 50년대에는 꽤 알려진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하지만 14년2개월 동안 근무한 국립현대미술관을 나와 가나아트센터로 자리를 옮긴 뒤까지 그의 직급은 10급 말단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장학생이 되는 꿈과 충혼어정 아들.



신문대일을 하며 가계를 돕는 부인, 전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17평짜리 서민아파트... 결국 그는 국립현대미술관 생활을 접고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으로 뜻을 굳혀갔다.

『잘』 못 표기된 글을 지적하거나 바로잡는 일을 하다보니 일부 인사들에게는 욕을 먹지요. '내부 편집정책이 아니냐' '두고 보지'는 등 감성적인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격려가 더 많습니다.

누구보다 가난함의 격려는 그에게 큰 힘이 된다. '나는 가난 감에겐 조나단과 무리 하려 할 필요 없다.' 조나단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고대했던 것같이 우리 아랍도 미술자료를 수집하며 표명한다. (중략) 조나단이 자신의 자식을 지지들에게 전해주듯 아랍도 자신의 자식을 지지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아랍의 조나단같이 나도 자존심 있고 의지가 굳고 착하며 외관 바보같은 폭력자가 되어야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것 같다. 조나단 리빙스턴 사관. 그는 영웅이며, 성공한 감배가다.

민회가가 국산다는 말을 영나가 3년전 한 학생집에서 듣고했던 글이다. 그는 이 글을 세상에 적당 한데로 소문난 간직하고 있다.

mbp@jyong.com

흩어진 미술 모아 미술사 세우기



작가에서 평론가·큐레이터까지 필생의 목표는 '한국미술인 사전'

취재
수첩

1. 김달진이 해운 일: 96년 가나아트센터로 자리를 옮긴 후 '미술지평' 전문가' 김달진은 더욱 바빠졌다. 그는 가장 먼저 2달간의 전시회 정보를 담은 8면짜리 소식지를 발행했다. 인사동 청담동 사간동 동숭동 등 서울시대 화랑지역을 7개로 구분해 지도와 함께 자세하게 실어준 이 소식지는 서울의 140여개 화랑의 위치와 그 화랑에서 여는 전시회가 빠짐없이 실리는 '미술계 개시판'. 1면5전부를 찍어 무료로 배포했지만 대면 모자란다는 아우성에 이번 5~6월호부터는 2면부로 늘려 복기 시작했다.

2. 김달진이 막 시작한 일: 지금 그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가나아트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ana-art.com).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전시회 한편 물론 네러존들은 이미 단골손님이 되어버렸다.

사물미술관중 가장 많은 자료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김달진은 '이 자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

다'고 말한다. 그는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머릿속'을 그대로 옮겨놓을 공리를 했다. 매일 그가 둘러보는 일간지 미술관련 뉴스와 미술계 인사의 동정, 교수 초빙소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갤러리 뉴스', 가나아트센터의 전시회 교육아카데미 레스토랑 아트숍 서클버스를 소개하는 '가나아트센터', 각종 미술정보 사이트나 문화관련 기관과 연결시키는 '링크' 사이트 등이 있다. 특히 'Dr. Kim's Lab' 사이트는 'today's behind story', 'culture guide', 'search', 'copyright', 'cyber gallery', 'faq'로 꾸며져 김달진이 꼼꼼히 준비한 미술관련 소사와 문화전반의 소식, 사이버미술관 관람을 손쉽게 할 수 있다.

3. 김달진이 준비하고 있는 일: 내년초 '김달진의 미술관 이야기'라는 책을 낼 계획이다. 그러나 그가 평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미술인 인명사전'. 185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작고작가들을 정리중이다. 내년말을 문고판을 내고 이어서 미술평론가와 미술사가, 큐레이터 등 미술어본가들의 인명사전도 정리를 계획한다. 이미 워드프로세서로 작업을 해놓은 종이문제가 두둑하다.